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난이도	득점
경영 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국민체감도 제외)			2		1.625
	(2) 정부 3.0			1.5		1.129
	(3) 경영정보공시 점검			1.5		0.750
	(4) 정부권장정책			5		3.942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5		5.000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1		0.982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1		0.859
	(2) 계량관리업무비			5		4.526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1.5	C			
	㉮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	1.5	B^0			
	(2) 총인건비 인상률			3		3.000
	(3) 노사관리	2	C			
주요 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C			
	2. 예술창작역량 강화사업					
	(1) 예술지원 프로그램 국민참여도			10	양호	8.863
	3.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1)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6	우수	6.000
	4.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1) 지역지원 프로그램 국민참여도			4	우수	3.988
전체 합계		**15**		**45**		
가산점		**임금피크제: 0.600**				

1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상대등급별 점수	목표부여	100.0	81.274	81.274	2	1.62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주관 2015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상대등급별 점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상대등급별 점수는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부여한 상대등급이 S등급이면 9점, A등급이면 6점, B등급이면 3점, C등급이면 0점으로 한다.

-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78.274점으로 전년도 대비 7.758점 하락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기획재정부에서 부여한 상대등급 B등급에 대한 점수 3점을 가산한 결과 고객만족도 지수 81.274점을 획득하였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와 상대등급별 점수를 합산하면 평점 81.274점으로 가중치 2.000점 중 1.625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사업수혜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보조금 정산 편의성 제고 등 9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월별 관리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 이러한 노력으로 통합문화이용권(89.0점),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82.5점) 등은 전년 대비 점수가 증가하여 고객만족도 개선과제 추진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2014년도 기관통합 이후 처음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공연예술센터(68.2점)와 예술자료원(78.8점) 등 문화예술공간 분야의 저조한 만족도 조사결과가 점수하락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과거 5개년의 경우 2010년 78.0점, 2011년 79.6점, 2012년 86.1점, 2013년 88.6점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도에 86.0점, 2015년도에 78.3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정부3.0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3.0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000	75.260	75.260	1.500	1.129

나. 평가내용

- 정부3.0 추진과 관련한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기관의 정부 3.0 추진기반,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정보공유, 맞춤형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실적을 산출한다.

- 추진역량(정부3.0 변화관리, 벤치마킹 · 확산 사례), 중점과제성과(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9개 세부지표로 분류,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상위 기관부터 25%씩 A~D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116개 기관 중 42위로 B등급(보통上)이며, 실적치 75.26점으로 가중치 1.5점 만점에 1.129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구분	배점	득점
추진역량		정부3.0 변화관리	홍보사례1	정성	0.030	0.019
			홍보사례2	정성	0.030	0.015
			홍보사례3	정성	0.030	0.026
			교육사례1	정성	0.045	0.036
			교육사례2	정성	0.045	0.038
		벤치마킹·확산사례		정성	0.150	0.113
중점과제성과	서비스 정부	국민 맞춤서비스 추진 사례		정성	0.225	0.165
				정성	0.225	0.135
		공공서비스 목록현행화 실적		정량	0.015	0.015
	유능한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정성	0.150	0.077
		나라e음 PC 영상회의 이용실적		정량	0.030	0.030
		기관간 협업행정 우수사례		정성	0.180	0.113
	투명한 정부	사전정보공표 운영노력도	사전정보공표 게시실적	정량	0.120	0.120
			사전정보공표 운영 내실화	정성	0.090	0.090
		데이터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 사례		정성	0.180	0.138
총 계					1.500	1.129

- 전체 9개 세부항목 중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나라e음 PC 영상회의 이용실적, 사전정보공표 운영 노력도 3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일하는 방식 혁신 및 기관간 협업행정 우수사례 등은 고품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효과성과 파급성이 다소 미흡하여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3.0은 2015년 강소형기관에 신규 추가된 지표로 평가대상 116개 기관 중 42위로 B등급(보통上)이며, 세부점수는 추진역량 0.247점, 서비스 정부 0.315점, 유능한 정부 0.219점, 투명한 정부 0.348점으로 총 1.129점을 획득하였다.

(3) 경영정보공시 점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경영정보공시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0	50.000	50.000	1.500	0.750

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고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경영공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른 벌점 구간에 따라 가중치 득점구간을 차등 적용한다.

- 벌점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며, 가중치 득점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이 없을 경우 1.5점, 벌점 0.1~10.0점의 경우 1.25점, 벌점 10.1~20.0점의 경우 1.0점, 벌점이 20.1점 이상일 경우는 0.75점으로 배분한다.

- 2015년 경영공시 일제점검 결과 벌점 21.00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벌점구간에 따라 가중치 1.5점 만점에 0.7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정기공시 항목 중 재무파트에서는 고유사업의 요약손익계산서 1건을 허위공시하여 벌점 3점이 부여되었고, 복리후생비 등의 부분에서는 임직원수에서 허위공시 2건, 복리후생비 주요항목에서 미공시 및 허위공시 각 1건, 8대항목에서 허위공시 1건이 발생하여 벌점 15점이 부여되었다.

- 수시공시 항목에서는 8대항목(경영/인사)부분에서 1건을 허위공시하여 벌점 1.5점이 부여되었다.

- 자율공시변경기간에 기관 자체 수정한 공시항목 15건에 대한 벌점은 건당 0.1점씩, 벌점 1.5점이 부여되었다.

라. 추세분석

- 경영정보공시 점검은 2014년 신규 지표로서, 2014년에는 총 벌점이 55점이었으나, 2015년에는 21점으로 전년도 대비 벌점이 24점 감소하였다.

(4)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0	78.841%	78.841	5	3.942

나. 평가내용

- 법령상 의무 권장 사항 및 주요 국가 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집계한 결과 평점 78.841점으로 가중치 5.0000점에 3.942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지표명	가중치	평점	득점
1.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0.700	85.000	0.595
2. 상용형 시간제 근무제 실적	0.300	60.000	0.180
3. 장애인 의무고용	0.300	30.000	0.090
4.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00	40.000	0.200
5.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0.800	84.630	0.677
- 기술개발제품	0.200	40.000	0.080
- 여성기업제품	0.300	100.000	0.300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0.300	80.000	0.240
- 중증장애인 생산품	0.300	100.000	0.300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0.400	100.000	0.400
- 녹색제품	0.200	100.000	0.200
6.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0.500	100.000	0.500
7.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천	0.200	90.000	0.180
계	**5.000**	-	**3.942**

- 전체 13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달성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90% 이상,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제품구매 부분에서는 8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하지만, '14년 한국공연예술센터와 국립예술자료원의 기관통합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 부분에서도 40%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은 최근 5년간 2009년 3.780점, 2010년 3.893점, 2011년 4.611점, 2012년 4.307점, 2013년 4.849점으로 지속적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과 2015년은 기관통합으로 인한 통제불능요인으로 인하여 각각 3.655점과 3.942점을 획득하였다.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순사업비 / 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800백만원 최저치 : 415백만원	1,027 백만원	100.000	5	5.0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수행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평균인원 대비 순사업비로 산출되며 목표부여(5개년 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5년 사업수행효율성 실적은 1,027백만원으로 평점 100.000점을 달성하여

가중치 5점 만점기준 5.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메르스 대응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 기관자체 예산확보 노력을 통한 관광기금/체육기금 등 수탁회계 적극 유치 등으로 총수입이 2014년 175,961백만원 대비 2015년 240,75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골프장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경상경비 감소로 관리업무비는 2014년 32,303백만원에서 2015년 26,197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순사업비는 2014년 131,060백만원에서 2015년 203,442백만원으로 상승하였다.

- 평균인원은 추경 및 신규수탁사업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2.9명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5년도 사업수행효율성은 최고목표치 800백만원 대비 1,027백만원을 달성하여 평점 100.000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순사업비는 2010년 54,475백만원, 2011년 71,775백만원, 2012년 90,741백만원, 2013년 116,294백만원, 2014년 131,060백만원 및 2015년 203,442백만원으로 총수입 증가 및 관리운영비의 합리적 관리 등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 평균인원은 2010년 159.7명, 2011년 180.7명, 2012년 177.7명, 2013년 183.7명 및 2014년 195.1명, 2015년 198.0명으로 기관통합, 신규 수탁사업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사업비집행액 / 사업비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0%	97.743%	98.194	1	0.982

나. 평가내용

- 기관 사업비 예산현액의 100% 집행을 목표로 하여 예산계획 대비 집행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5년 사업비예산현액 268,395백만원 중 262,337백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집행률 97.743%로 가중치 1점 만점기준 0.982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월 2회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실적 및 향후 전망을 파악하고, 집행 부진 사업을 독려하는 등 체계적 관리로 사업비 예산현액의 불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집행률 97.743%를 달성하였다.

- 2015년 사업비예산현액 중 가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은 97.56%를 달성하였고, 수탁회계는 16년도 계속사업의 차기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실적이 99.29%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집행률은 2012년 처음 적용된 지표로 2012년 96.933%, 2013년 99.132%로 상승추세에서 2014년 97.500%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5년 97.743%로 소폭 상승하였다.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기금운용평가 결과 활용	목표부여	100.0	85.850	85.850	1	0.859

나. 평가내용

- 자산운용정책(계획) 및 자산운용관리(집행)의 비계량평가와 단기자산의 연간(상대) 운용수익률과 2년간(절대) 운용수익률, 중장기자산의 연간(상대) 운용수익률과 3년간(절대) 운용수익률 및 샤프지수 등의 자산운용실적(성과)을 평가한 지표로, 평가결과 85.850점으로 가중치 1.000점에 득점 0.859점이다.

다. 항목별 원인

① 자산운용 체계 및 정책

-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체계가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 조직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성과평가는 외부 성과평가 전문기관에 성과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부위탁운용 부문은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외부위탁투자기관의 선정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중도회수 및 재투자기준을 자산운용지침에 명시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와 위탁운용사 성과관리기준을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지침'에 명시하는 등 투자기관의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적정유동성 규모를 추정하고 월별 현금성 자금 운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적정유동성 배분 규모가 자산운용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현금성 자금의 성격과 발생원인 및 규모를 파악하여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회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장기 자산 배분을 위해 자산배분 시나리오별 비교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중심으로 평균-분산 최적화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기자산 및 중장기 자산의 만기별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을 자산운용지침에 명시하여 준수하고 있다.

② 자산운용관리(집행)

- 자산운용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자산운용 전담인력 구조를 정 · 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역량 교육 및 외부세미나 등을 통해 자산운용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다.

- 외부 위탁투자기관 사후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즉, 외부 위탁투자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펀드 점검, 월별 운용보고서 징구 및 외부전문기관 활용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사에 대한 주기적 정기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및 조치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요인별로 위험을 분류하고 각 위험별 관리방안을 수립 · 실행하고 있으며, 과거 대체투자로 발생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자산 중 일부가 회수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본 기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비중이 커 이에 대한 지속적인 회수노력이 필요하다.

- 자산운용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일별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차이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량지표를 활용하여 위험 대비 성과 및 원인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관리

- 부실자산의 회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당해연도 전체 기금수익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탁월' 등급을 획득(전체 기금 중 단 세 곳만 '탁월' 등급 획득)하였으며, 단기자산의 수익률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2014년 단기자산 수익률 평가 '미흡' → 2015년도 '양호')되었다.

- 운용기관 및 상품은 위험분산을 위하여 적절하게 잘 분산하여 예치함으로써

전년도에 이어 집중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 정부 권장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기금투자풀 내 '신성장동력' 투자상품의 꾸준한 평잔유지를 통하여 공공성에 대한 확보노력도 역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백분율 환산 기준 점수는 2010년 30.95점 대비 2011년 16.05점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제도개선 및 부실자산의 효율적 관리, 관리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연기금투자풀 제도 적극적 활용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2012년 54.1점, 2013년 79.5점, 2014년 68.0점으로 회복추세에 있었으며, 2015년에는 부실자산 회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85.85점을 획득하면서 개선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 매출액	목표부여 (편차)	최고치 : 0.069 최저치 : 0.414	0.110	90.516	5	4.526

나. 평가내용

- 기관의 관리업무비의 절감노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매출액 대비 관리업무비를 목표부여(5개년 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2015년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은 0.110으로 평점 90.516점을 달성하여 가중치 5점 기준 4.526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편

람에 따라 사업비 집행액을 매출액으로 평가한다.

- 메르스 대응 예술시장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 기관 자체예산 확보노력을 통한 신규수탁사업 유치 등으로 전체 매출액이 2014년 175,435백만원에서 2015년 237,805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골프장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경상경비 감축으로 관리업무비는 2014년 32,303백만원에서 2015년 26,197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도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은 최고목표치 0.069대비 0.110점으로 평점 90.516점, 4.526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매출액은 신규수탁사업 유치, 추경편성 등으로 인해 2010년 107,605백만원, 2011년 136,028백만원, 2012년 147,957백만원, 2013년 149,161백만원, 2014년 175,435백만원 및 2015년 237,80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관리업무비는 자산재평가손실 및 장기대여금 대손상각비 등으로 인해 2010년 49,983백만원, 2011년 53,926백만원으로 증가하다가, 기관의 관리운영비 합리적 관리로 인해 2012년 46,624백만원, 2013년 25,824백만원, 2014년 32,303백만원 2015년 26,197백만원 등 감소 추세에 있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이 전년도 평가에서 경영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성과급 비중 등 정부권고안 미준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아 보수체계 개편으로 비중 재조정을 통한 성과연봉 비중 20% 이상 유지, 간부 성과급 차등폭 확대(2.64배)를 통한 전체 연봉차등 폭을 개선하였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만족도 등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환류활동으로 성과연봉제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누적식 성과연봉제를 전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직무급을 간부직과 비간부직에게 모두 도입(상시 직무급 개편으로 직무가치 적정반영 및 운영 적정성 제고), 직무급의 비중 역시 전년대비 간부직(9.2%→12.1%), 비간부직(3.4%→4.6%) 모두 점진적으로 확대(직무급 인상을 통한 비중 확대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강화)하고 있으며, 전체연봉차등 폭이 20.0%에서 22.9%로 상승된 점은 우수한 사례로 판단된다.

- 기관이 간부·비간부 특성과 보수항목을 고려한 평가시행으로 연봉결정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기관은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참여형 보수·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류하여 그 결과 전직원 공감대 형성 노력을 통한 성과연봉제도가 개선되어 보수부분 만족도(4월 3.17점→12월 3.69점)와 복리후생부분 만족도(4월 2.75점→12월 3.34점)가 상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보수·복리후생관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PDCA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보수·복리후생의 목표와 전략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추진전략의 방향이나 목적의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개선 및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수용도, 만족도, 공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파악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연봉제의 정착과 확대를 하라는 지적을 하였으나, 단순히 만족도 조사만을 하였을 뿐 수용도와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관은 고졸자 등의 보수·복리후생제도의 차별을 개선하라는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복리후생제도는 동일하나 보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장학금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규정을 두어 이중 지급을 방지 한 것, 근무 중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해 근무능력 상실 시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한 것, 불임 치료를 위한 휴직 6개월 등 공무원 기준과 상이한 휴직규정을 개정한 것,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 징계 중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을 퇴직일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퇴직금 감액과 관련하여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직위해제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의 2015년 1인당 복리후생비는 1,155천원으로 전년대비 72천원 감축하였다. 기관은 복리후생 부분개선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노동조합에 전달하고 노사공동 TF를 운영하여 가족돌봄 휴직제도 도입, 출산예정자 조기퇴근제도 운영,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사택 시설 확충, 스마트워크센터 시설 확충 시간근무제 전환 독려 등 비금전적 복지제도를 발굴하여 복리후생 만족도를 향상시킨 노력이 인정된다.

-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여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휴직을 부여하는 부분, 휴직,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분 보수전액을 지급하는 부분,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휴일수당계산방법, 기타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기관 설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부분은 추가적인 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2015.09.24 노사합의를 거쳐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조정기간을 2년으로 하되 1차년도 70%, 2차년도 55%를 임금지급률로 하는 전직원 대상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2020년까지 신규채용인원은 총 9명이며 임금피크대상자는 별도직군의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임금피크대상자를 위한 별도직무를 개발하였으며, 임금피크대상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화

하였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보직운영규정, 별도직무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전환조건, 평가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C"(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은 "B^{0}")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실적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3.8% 이내	2.108%	100.000	3	3.000

나. 평가내용

- 전년도 대비 당기 인건비 인상률의 정부 예산관리 기준(3.8%내)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2015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2.108%로서 정부 예산관리기준의 인건비 인상률 한도를 준수하여 가중치 3점에 3.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총인건비는 2014년 6,281백만원에서 7,091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기관통합 시점을 기준으로(2014.5.29) 통합대상 기관 직원들을 신규채용으로 간주하여 증원소요인건비로 반영하여 정부 권고안을 충족하였다.

- 또한, 기관통합과는 별개로 퇴직 및 신규입사, 승진 등 월별 인원변동에 따른 증원소요인건비와 연차수당 지급 가능액 예측 등의 인건비 인상요인을 변수로 적용한 통합 시뮬레이션 관리로 임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총인건비인상률 목표치 3.8% 이내인 2.108%를 달성 하였다.

라. 추세분석

- 총인건비인상률은 2010년 1.6% 대비 -1.600%, 2011년 5.5% 대비 3.925%, 2012년 3.9% 대비 2.496%, 2013년 2.8% 대비 1.178%, 2014년 1.7% 대비 -0.065%, 2015년 3.8% 대비 2.108%로 매년 정부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노사관리

- 기관이 전년도 평가에서 성과지표가 전략과제의 달성정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노사선진화전략 및 과제 실행력 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전면개선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전년도 평가에서 노사관계협력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 노사관계의 직접적 성과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실질적 노사관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4월, 12월 2회 진단을 실시하여 노사 간 협력관계 만족도 및 소통채널 만족도가 상승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은 노사관계 전략수립 및 운영에 있어 노사공동 TF를 운영(10회)하여 개선방향과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직원 참여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를 예측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향후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3대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방향 및 7대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과제 이행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성과평가제도와 연계하고 평가결과 및 설문조사를 2016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사관계 전략 개발 · 분석 · 실행 · 환류 과정에서 노사공동의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내부진단결과 노사 간 협력관계 만족도가 4월 2.52점에서 12월 3.01점으로, 노사 간 소통채널 만족도가 4월 2.30점에서 12월 3.31점으로 상승한 점은 노사 간 상호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사공동의 노력과 성과로 평가된다.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 필요역량, 역량강화체계, 역량교육 프로그램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 기관은 HRD(인력개발)체계와 노사관리역량 관리체계의 틀 속에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상선정, 학습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관계 핵심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CDP(Career Develop ment Program)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은 실제적 의사소통채널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평가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통채널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없이 소통채널의 선택과 집중을 한 점은 아쉽게 생각된다. 특히 기관은 사측 중심의 교섭활동을 노측 중심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노사 간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한 것, 기관이 정하는 날을 휴일에서 제외한 것,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던 것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변경한 것, 육아휴직 신청자격을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경우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용자가 허가한 근로시간 중의 조합 활동에 대해서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조합 활동을 위해서 부여된 면제시간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 업무상 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조정한 것,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행한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 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 대휴를 주도록 한 것을 휴일에 근무한 경우 대휴를 주거나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체협약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기관의 단체협약 제 31조는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제명령을 받은 즉시 징계를 무효처분 원직복귀, 보수소급지급 해고기간 근속년수 산입의 조치를 취하고 기관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재기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제명령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은 인정되나,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무효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자격은 법령에 따라 보다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은 2014년 '예술 창작역량 강화', '생활속 예술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3대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도 이들 3대 주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기관은 사업비의 88.2%를 3개 주요사업에 배분하여 사업 성과창출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주요사업 단위 조직개편 및 인력 집중 배치(전년 대비 31.8% 증가)로 사업 실행력을 극대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창작지원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지역지원 기능에 협력업무 추가, 지역별 특성화 전략 수립 전문인력 강화 등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예산 및 인력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3의 예산 및 인력 비중이 크게 낮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로 판단되어 주요사업 개편 등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창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작산실 체계 전면 개편, K-Arts 글로벌 마켓 진출 확대, 베니스비엔날레 2년 연속 수상 달성 등을 실행과제로 선정한 것은 기관의 적절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관이 문학, 시각, 공연 분야에서 기존 공급중심의 창작지원에서 '유통-소비 활성화'까지의 수요진작 지원으로 지원 개념을 확장한 것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 주요사업의 성과목표에 국민참여 개념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체감 요인을 계량변수에 반영함으로써 성과(outcome)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요사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량지표를 기관의 설립 목적과 비전과 연계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는 노력을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 다만, 계량지표가 수혜자 만족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대부

분이 지원액 대비 참여자 수로 달성 가능성이 평이한 수준으로 평가됨에도 3개 중 2개 지표가 우수로 평가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량지표의 변수 측정에 대해 과학적인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계량지표의 개념적 대표성 이외에도 세부 측정변수에 대한 대표성과 측정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관은 이 같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술 창작역량 강화',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3대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들 주요사업은 설립 목적과 전사 경영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립 목적 근거, 대내외 환경분석, 가치체계 방향 분석에 이어 전략체계 검토를 거쳐 전략적 중요도, 보유역량 기준 계층적 위계(AHP) 분석을 통해 16개 주요사업 풀(pool), 10개 주요 사업군을 도출하고 고객별 유형화 후 3대 주요사업을 선정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연중 주요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전담 TF 운영, 사업별 성과공유 및 사업 간 협력을 통한 각 성과목표 달성 동력 강화 등으로 설정한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주요사업 실행→문화융성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성과목표를 국민참여 중심으로 변경하고, 국민 체감수준 파악을 위한 만족도 지표를 도입한 점이 인정된다. 모든 주요사업에 있어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율을 2:1로 유지함으로써 평가체제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사업비의 88.2%를 3개 주요사업에 배분하여 사업 성과창출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주요사업 단위 조직개편 및 인력 집중 배치(전년대비 31.8% 증가)로 사업 실행력을 극대한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사업비 증가가 예술창작역량 강화보다는 생활 속 예술 활성화에서 이루어졌고, 인력 증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은 예산과 인력 등 자원배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창작지원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지역지원 기능에 협력 업무 추가, 지역별 특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인력 대폭 강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예산 및 인력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3의 예산 및 인력 비중이 크게 낮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로 판단되어 주요사업 개편 등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은 주요사업 선정을 위해 10개 주요사업군을 고객별로 유형화한 후 3대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주요사업1에 6개, 주요사업2와 주요사업3에 각각 2개 사업이 배정됨으로써 주요사업별 비중이 차이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사업 성과지표 개발과 목표수준 선정에서 비계량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예술창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작산실 체계 전면 개편, K-Arts 글로벌 마켓 진출 확대, 베니스비엔날레 2년 연속 수상 달성 등을 실행과제로 선정한 것은 기관의 적절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관이 문학, 시각, 공연 분야에서 기존 공급중심의 창작지원에서 '유통-소비 활성화'까지의 수요진작 지원으로 지원 개념을 확장한 것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와 같은 단계적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이 예산, 조직, 인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지원사업은 단계마다 특성이 달라 기관의 역할이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작 단계에서는 예술성 강화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창작산실 사업 및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대본 공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는 편법운용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메르스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수행된 공연티켓 1+1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지적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통과 소비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사이버 문학광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을 기존 수도권, 취약계층 중심에서 경제사회적, 지리적, 생활여건 등의 기준을 도입하여 서비스 대상의 전면 확대를 시도한 것은 전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카드발급 시간 단축, 가맹점 조사강화, 이용서비스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3)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2014년에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황금사자상 수상에 이어 2015년에는 본 전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베니스비엔날레에서 2년 연속 수상을 달성한 것은 기관의 비계량적 우수 성과로 평가된다. 기관은 주요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량지표 외에 예술지원 성과의 사회적 확산 체계 고도화, 문화나눔 신규 사업대상 발굴 및 지원 수준, 지역문화예술네트워크 협력수준 제고라는 비계량지표들을 제시하였는바,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들 비계량적 성과지표에도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4)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 선정에 이어 성과지표 도출-자체평가-조직성과평가-개인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것이 인정된다. 또한 주요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및 국회, 감사원, 경영평가 등 외부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류활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

- 일반인의 생활예술 향유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 외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공연을 신규로 추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지역 메세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앞으로도 생활예술 향유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메세나 지원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주요사업별 범주의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 계량지표의 대부분이 지원금액 대비 참여자 수로 달성 가능성이 비교적 용이한 지표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계량지표의 변수 측정이 자의적으로 과대 산정이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계량지표가 수혜자 만족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지원액 대비 참여자 수로 달성 가능성이 평이한 수준으로 평가됨에도 3개 중 2개 지표가 우수로 평가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계량지표의 변수 측정에 대해 과학적인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의 수 등에 대한 측정에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사업 수행주체가 보고한 내용대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예술지원사업의 성과를 참여관객 수 이외에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과 측정방법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계량지표의 개념적 대표성 이외에도 세부 측정변수에 대한 대표성과 측정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집행 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그리고 주요사업범주 전체 지표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C”로 평가한다.

2 예술 창작역량 강화사업

(1) 예술지원 프로그램 국민참여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평점)×0.8 + 공연예술센터 공연참여관객수(평점)×0.1 + 예술지원프로그램 만족도(평점)×0.1

변수1 =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예술인(단체)지원 집행총액 평점
변수2 = 공연예술센터 공연참여관객수 평점
변수3 = 예술지원프로그램 만족도 평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10)	난이도 계수	득점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356.833 최저:105.779	356.947	100.000	8	0.9	8.863
공연예술센터 공연참여관객수	목표부여 (편차)	최고:203,573 최저:149,551	257,885	100.000	1		
예술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목표부여 (편차)	최고:94.151 최저:77.527	90.989	84.783	1		

나. 평가내용

- 예술 창작역량 강화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된 ①예술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객수준과 ②공연예술센터 공연참여관객수 ③참여관객 만족도를 세부지표로 별도 측정하여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은 예술창작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액 1백만원 당 참여관객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2015년도 실적은 356.947(명/백만원)으로 최고목표인 356.833(명/백만원)을 달성하여 평점 100.0점, 공연예술센터 공연참여관객수 실적은 257,885명으로 최고목표 203,573명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만족도 실적은 최고목표 94.151점을 달성하지 못하고 90.989점에 그쳐 평점 84.783점을 기록하여, 최종 득점을 8.863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작산실 지원체계로의 개편과 K-Arts 글로벌 마켓 진출 확대, 베니스 비엔날레 2개년 연속 수상 등에 힘입어 참여관객 수는 전년 대비 5.323% 증가한 12,460,315명을 창출하였다.

- 침체된 대학로 극장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관 공연장을 운영하는 등 공연에 대한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공연예술센터 공연참여관객수도 당초 목표인 203,573명을 초과한 257,885명을 달성하였다.

- 고객니즈를 고려한 우수프로그램의 개발·관리를 통해 예술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실적 90.989점을 창출하였다.

라. 추세분석

- 예술지원프로그램 백만원 당 참여관객 수준은 ('09년) 139.627명/백만원 → ('10년) 45.720명/백만원 → ('11년) 137.279명/백만원 → ('12년) 180.481명 /백만원 → ('13년) 186.232명/백만원 → ('14년) 231.306명/백만원 → ('15년) 356.947명/백만원으로 '09~'10년을 제외하고는 '15년까지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공연예술센터 공연참여관객수는 '15년 신규 지표이나 ('14년) 176,380명 → ('15년) 257,885명으로 전년 대비 46.21% 증가하였다.

- 참여관객 만족도는 ('11년) 80.800 → ('12년) 75.300 → ('13년) 76.400 → ('14년) 85.839 → ('15년) 90.989로 '12년 이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생활속 예술 활성화사업

(1)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수준(평점)×0.9 + 문화나눔사업 만족도(평점)×0.1

변수1 =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수/ 복권기금 집행총액 평점
변수2 = 문화나눔사업 만족도 평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6)	난이도 계수	득점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수준	목표부여 (편차)	최고:80.168 최저:61.728	80.912	100.000	5.400	1.0	6.000
문화나눔사업 만족도	목표부여 (편차)	최고:86.247 최저:81.673	86.343	100.000	0.600		

나. 평가내용

- 생활속 예술활성화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된 ①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수준과 ②참여관객 만족도를 세부지표로 분리 측정하여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한다.

-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수준은 복권기금 중 민간경상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 1백만원 당 참여관객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2015년도 실적은 80.912(명/백만원)으로 최고목표인 80.168(명/백만원)을 상회한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00점, 문화나눔사업 참여관객 만족도 실적은 최고목표 86.247점을 상회하는 86.343점을 획득하여 평점 100.00점을 기록하여 최종 득점을 6.00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문화 향유 취약요인을 경제적 요인(기초 · 차상위 계층), 사회적 요인(장애인,

노인, 재소자, 군부대 등), 지리적 요인(도서산간, 농산어촌), 생계적 요인(직장근로자, 소상공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혜자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정과제인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행사참여를 위한 종합홍보안내센터 지정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2015년도 문화나눔사업 국민참여수준 80.912(명/백만원)을 창출하였다.

-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발급 - 정보확인 - 가맹점관리'에 대한 수혜자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2015년도 참여관객 만족도 실적은 86.343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문화나눔사업 1백만원 당 참여관객 수는 ('11년) 60.717명/백만원 → ('12년) 59.095명/백만원 → ('13년) 65.379명/백만원 → ('14년) 70.948명/백만원 → ('15년) 80.912명/백만원 으로 매년 안정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문화나눔사업 만족도는 ('11년) 80.820점 → ('12년) 82.067점 → ('13년) 81.727점 → ('14년) 83.960점 → ('15년) 86.343점으로 '13년에는 3개 이용권 통합운용 시범년도로 만족도가 소폭 하향되었으나 이후의 추세치는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1) 지역지원 프로그램 국민참여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평점)×0.9 +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평점)×0.1

변수1 =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지자체(재단) 집행총액 평점
변수2 =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 평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4)	난이도 계수	득점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	목표부여 (편차)	최고:520.880 최저:351.132	521.276	100.000	3.600	1.0	3.988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	목표부여 (편차)	최고:90.703 최저:79.385	90.285	97.046	0.400		

나. 평가내용

-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지원된 ①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과 ②참여관객 만족도를 세부지표로 분리 측정하여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평가한다.

- 지역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수준은 지역지원프로그램에 투입된 1백만원 당 참여관객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2015년도 참여관객 수준은 521.276(명/백만원)으로 최고목표 520.880(명/백만원)을 상회하여 달성하여 평점 100.00점, 2015년도 지역지원프로그램 만족도는 최고목표 90.703점에 미달한 90.285점을 획득하여 평점 97.046점을 기록하여 최종 득점을 3.988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창작콘텐츠의 질적 성장을 위해 창작-연습-상연까지의 단계별 전용공간을 각 지역에 지원하여, 210개 창작물 생산, 88,672명의 예술

인 공간운영, 350회의 상연·전시실적을 달성하였고, 지역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21개 민간 협업프로젝트 추진 등의 성과를 창출하여, 참여관객수가 전년대비 23.375% 증가하였으며 참여관객 수 실적 521.276(명/백만원)을 창출하였다.

- 또한, 지역별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향유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자 만족도는 전년대비 5.241점 상승한 90.285점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지역지원프로그램 1백만원 참여관객 수는 ('11년) 321.655명/백만원 → ('12년) 409.809명/백만원 → ('13년) 383.284명/백만원 → ('14년) 436.006명/백만원→ ('15년) 521.276명/백만원으로 '11년~'12년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참여관객 만족도는 ('11년) 80.800 → ('12년) 77.800 → ('13년) 78.500 → ('14년) 85.044 → ('15년) 90.285로 '12년 이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